

# '얼굴 없는 편집자'

얼마전 불교서적을 주로 내는 출판사의 영업사원들이 불교서적영업인모임을 결성한 바 있다. 출판계에는 이외에도 영업자들이 모여 만든 ○○회 같은 것들이 여럿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들의 모임은 최소한 걸음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듯하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조직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어느 분야건 마찬가지이겠지만, 요즘 출판계에서도 정보가 생명처럼 중히 여겨져 어느 출판사가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지는 극비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고의적이 아닌 중복출판이 발생한다. 중복출판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편집정보의 부분적인 공유도 바람직하지 않

을까. 그렇게 따져볼 때 편집자들의 모임은 성격 운운하기 이전에 한번쯤 고려해볼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편집자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게 또 있다. 일단 독자는 책을 통해 저자의 이름과 출판사, 그리고 인쇄소 정도밖에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그 책에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 일이고, 독자들은 책을 읽는 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허나 그들 가운데 우선 순위로 따져 이름을 추가한다면 편집자가 어떨까. 사실 대부분의 편집자는 저자의 원고를 받아 교정 교열을 비롯해 제작감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며, 그 임무의 막중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대개의 책들은 저자 역자 발행자, 그리고 인쇄인의 이름을 판권란에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관행을 깨고 있는 출판사가 늘고 있다. 즉 편집자를 판권란에 밝힌 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제작 미술 관리 영업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옮겨놓은 책도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출판계의 이직율이 높아 그런 작업이 불필요한 요식행위이고, 별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이 삽입되는 책에 편집자는 더 큰 애정을 갖게될 것이고, 아울러 찬찬히 읽다보면 끝없이 나오는 오자 탈자의 수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독자들에게 좀더 나은 책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편집자에게는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도 심어주면서 말이다. 편집자가 마치 기술자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짙은 요즘, 편집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책들이 반갑다.

— 최태원 기자

# 재미있는 책이야기

어느 시대건 독재권력은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자유로운 사상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억압해왔고, 그런 역사의 흔적을 찾기로 그리 어렵지 않다. 실증적인 고찰이 돋보이는 책 「바스티유의 금서」(주명철 지음, 문학과지성사)는 바로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활발하게 펼친 사상운동에 대해 앙시앵 레짐의 전제군주들이 어떤 탄압의 철퇴를 휘둘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책은, 자유를 향한 열망과 그것을 물리적인 힘만으로 막으려는 독재권력의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동시에, 지적 운동의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었던 출판과 책을 둘러싼 검열을 비롯한 탄압의 실상 및 당시의 출판상황을 전해주고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18세기의 사상운동은 서적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쁜 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책들은 한편으로는 처벌을 받기도 하면서 전통적 권위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직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의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인쇄물을 제작하고 유포시키는 주역들을 추적하였던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할 것이다. 왕권은 앙시앵 레짐

의 전기간을 통하여 수많은 법령을 마련하여 서적 제작자와 상인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불은 책자의 거래를 금지시키려 하였다.(중략)

주지하다시피, 인쇄술이 15세기 중엽에 파리에 소개된 이후,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그후에는 점점 구전문화의 영역을 좁혀나간 문자교육과 함께 발달하였다.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대학의 교재 외에 일상의 기도서와 왕령 등을 인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함께 신교의 교리가 전파됨에 따라 16세기에는 여러 가지 왕령이 마련되어 인쇄물에 대한 조직적인 감시체제가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왕권은 서적의 세계를 더욱 철저히 감독하기 위하여 17세기말에는 사전검열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도서출판행정국을 창설하면서 인쇄소의 숫자를 줄여 해로운 글의 유포를 금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중략)

앙시앵 레짐 말기에 있어서 독서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들은 전체인구의 2%에 불과하였다.

"우리가 인구전체에 대한 최소한의 비율을 따져본다면, 기초교육을 받아 잠재적인 독자층을 이룰 사람은 50만명 정도에 달한다."

그들이야말로 문자문화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글의 내용이 구두로 전해지는

경우를 배제해서는 안되겠다. 이는 특히 도시의 생활에서 두드러진 일면이었다. 망드루는 시골과 도시의 정보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시에서 서민층은 만과서를 읽는 외에도 접하는 것이 실로 많다. 다소간에 접할 수 있는 신문, 길모퉁이의 벽에 붙은 벽보, 장상비방문은 시장에서나 교회문전에서 이 손저 손을 거쳐 팔렸으며, 거의 매일 나오는 관공서의 포고령은 선술집이나 수공업자의 작업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었고, 무대나 거리에서 펼쳐는 공연과, 그것보다 자주 있고 다양한 선교행위 등, 이 모두가(넓은 의미에서) 훨씬 풍부한 정보의 폭이라 할 수 있다."(중략)

한마디로, 파리의 독자들은 신간이건 헌책이건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었고, 한번 읽은 후에는 헌책방에 되파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은 또한 공공도서관이나 사설대본소에서 독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적과 제작에 관하여 알아보면, 1777년에 왕국내에서는 총 149개 마을마다에 적어도 하나의 인쇄소가 있었다. 이 숫자는 18세기를 지나는 동안 줄어든 것이다. 대체로 30% 정도의 감소가 있었지만, 파리와 지방의 비등차이는 큰 것이었다. 즉 1701년과 1777년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로렌지방을 제외한 지방에

서는 360에서 254로, 파리에서는 51에서 36으로 각각 30% 정도 감소하였다. 이렇게 볼 때 파리는 단독으로 나머지 지방의 14%에 해당하는 인쇄소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인 숫자는 줄어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율상으로는 조금도 감소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파리의 특권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다. 인쇄소의 수와 인구를 비교해보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중략)

서적의 판매에 관해서 살펴보면, 직업인들은 서적상, 인쇄물 행상인, 소매상인, 타지방상인 등으로 나뉘었다. 물론 그들에게 불법 출판물의 판매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모험을 하였다. 동기별로 보아, 대부분이 수입을 위해서 그리 하였지만,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규정을 어긴 예도 있었다. 예를들어 장세니즘 신봉자들이 에리상, 드양시, 뷔타르 등은 장세니즘 관계서적을 판매하여 예수회와의 투쟁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다.(중략)

그들은 경찰권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남자는 외투아래 여자는 치마속에 인쇄물을 감추고 판매를 하거나, 파리로 서적을 반입함에 있어서 경비소를 피하기 위하여 길을 수없이 우회한다든지 심지어는 경비대 관리를 매수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출판저널

통권 제112호 / 1992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업무부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攸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宰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夏 | 安秉永     |
| 安輝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景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勛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靛 | 李重漢     |
| 李姬載 | 林培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煥鍾 | 鄭雲瑛 | 鄭晉錫     |
| 鄭鎮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慶 | 韓勝憲 | 許順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부터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동형 수취 수취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